

# 왕을 낳았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비운의 여인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왕을 낳은 칠궁의 후궁들

홍미숙 지음

“중년 집안 출신으로 궁녀가 되어 입궁한 장씨는 희빈에 오른 것만 해도 영광이었을 텐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급기야 희빈 장씨는 숙종의 제1계비인 인현왕후 민씨를 모함하여 몰아내고 왕비의 자리에 오르려 했다. 당시 숙종은 그녀에게 폭 빠져 헤어 나오지를 못했다. 숙종은 희빈 장씨를 빈으로 승격시킨 다음 왕자도 낳지 못하고, 자신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던 제1계비 인현왕후 민씨를 폐위시켰다. 그리고 희빈 장씨를 책봉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2명의 왕비가 낳지 못한 아들을 낳음으로써 궁녀에서 왕비까지 초고속으로 신분 상승하였다. 궁녀 출신이 왕비에 오른 경우는 희빈 장씨가 처음이었다.”(본문 중에서)



조선의 왕은 27명이었다.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 실제 왕비의 소생은 몇 명이나 될까? 모두 15명이었다. 조선의 실제 왕비는 3명의 폐비(성종의 폐비 윤씨, 연산군의 폐비 신씨, 광해군의 폐비 류씨)를 포함해 41명이다. 이들 중 13명만이 왕을 낳았으며 나머지는 왕을 낳지 못했다.

조선은 왕비가 왕자를 낳지 못하면 후궁의 아들이 대를 잇는 왕조국가였다. 1대 태조부터 13대 명종까지는 적자가 왕위에 올랐다. 문제는 명종 사후에 불거졌다. 당시 인순왕후 심씨와의 사이에 순회세자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세자가 13세에 요절했다.

종묘에는 조선의 왕과 왕비, 사후 왕으로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종묘 다음 큰 사당이 바로 칠궁이다. 조선의 왕을 낳았으나 왕비에 오르지 못한 후궁 7명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왕이 사랑했지만 결국 왕비가 될 수 없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다. ‘조선이 버린 왕비들’의 저자인 홍미숙 작가가 펴낸 ‘왕을 낳은 칠궁의 후궁들’은 비운의 여인들을 불러낸다.

“칠궁은 원래 제21대 왕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의 육상궁 자리였다. 무수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녀는 숙종의 후궁이 되어 조선의 최장수 왕이자 최장기 집권왕이었던 영조를 낳았다.”

저자는 왕을 낳은 후궁들 7명은 영조와



어머니 숙빈 최씨 덕을 봤다는 입장이었다. 숙빈 최씨 사당이 있던 자리로 모두 옮겨와 대접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명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선조는 적통이 아닌 방계혈통이었다. 중종과 후궁 장빈 안씨 사이에서 태어난 덕흥대원군의 3남이 바로 선조였다. 그런데 선조 또한 원비의 인왕후 박씨 사이에 자녀가 없었던 탓에 적통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다. 계비 인목왕후 김씨가 영창대군을 낳았지만, 안

타깝게도 선조가 세상을 떠났을 당시 영창대군은 너무 어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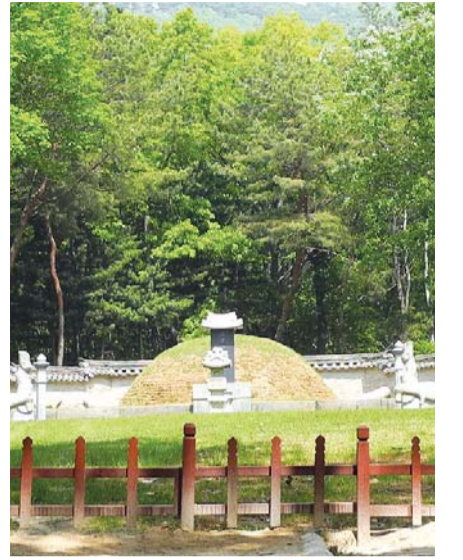
그 결과 서자였던 광해군(공빈 김씨의 소생)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영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선조의 또 다른 후궁 인빈 김씨의 아들 정원군의 맏아들 능양군이 반정을 주도해 이복 삼촌 광해군을 몰아낸 것이다.

칠궁은 모두 다섯 채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재실 영역, 삼락당 영역, 육

상궁 영역, 대빈궁과 경우궁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7명의 후궁들 중 유일하게 왕비에 올랐던 이는 희빈 장씨다. 그러나 그녀는 악행 탓에 폐비의 운명을 맞았고 이후 후궁으로 강등됐다. 연산군의 어머니처럼 서인으로 강등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다.

희빈 장씨 이후에는 후궁이 다음 보위를 이을 왕을 낳아도 왕비에 오를 수 없었



궁녀에서 왕비의 자리까지 초고속 승차한 희빈 장씨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대빈궁(왼쪽)과 사도세자 어머니 영빈 이씨가 잠들어 있는 수경원. <글로벌세움 제공>

다. 희빈 장씨 악행에 질린 숙종이 국법을 고쳐 버렸다. 결국 후궁들은 왕비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자리를 넘볼 수 없었고 왕의 첩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밖에 책에서는 영조의 후궁 연호궁의 정빈 이씨와 선희궁의 영빈 이씨를 비롯해 정조의 후궁 경우궁의 수빈 박씨, 고종의 후궁 덕안궁의 순현황귀비 엄씨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글로벌세움·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소녀 연예인 이보나

한정현 지음

장편 ‘줄리아나 도쿄’로 제43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한정현은 201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역량 있는 소설가다. 이번에 펴낸 첫 소설집 ‘소녀 연예인 이보나’에는 모두 8편이 수록돼 있으며, 전작인 작품에서 보여주는 탐구적 태도와 윤리적 질문을 이어받는다.

작품집 속 인물들의 이름은 작품을 건너다니다 등장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더러 알맞게 끼워지는 퍼즐조각 같지만, 어떤 이름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을 뿐 들어맞지 않는다. ‘우리의 소원은 과학 소년’ 속 남장 소설가 경준의 본명은 경아. 이 이름은 ‘조만간 다시 태어날 작정이라면’의 인물 경아와 같다.

작가는 이름과 함께 운명을 겹쳐놓는 방식으로 서사를 이끌어 간다. 여성의 이름, 소수자의 이름은 한 생애가 끝나면 다른 누군가의 생애로 이어져 이름이 된다. 즉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 데 모티프가 있다. 또한 이번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양상을 보인다. 더러는 배로, 더러는 비행기로, 여든가로 가며, 자신의 생을 살아간다.

이들 통해 작가는 삶에서 지워졌던 이들을 무대 위에 불러 세운다. 조명이 비추는 곳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과거, 다시 말해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야 그림자처럼 모습을 보이는 주인공들이나 셈이다.

인어영 문학평론가는 작품해설에서 “‘소녀 연예인 이보나’는 언뜻 서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소수자들을 이어 주며, 이들이 하나의 점에서 만나 반짝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 준다. 이 수많은 이들은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필연적으로 만나 서로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한다”고 평한다.

<민음사·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머니랜드

올리버 벌로 지음, 박중서 옮김

불법 금융과 돈세탁의 은밀한 세계를 파헤친 ‘머니랜드’는 2018 선데이타임스 올해의 경영서, 2018 데일리메일 올해의 책, 2018 타임스 올해의 책, 2019 오웰상 최종 후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전쟁과평화보도연구소의 편집자를 역임했던 올리버 벌로가 펴냈으며 슈퍼리치들이 부정하게 얻은 부를 파헤치는 데 초점을 뒀다. 저자는 웨일스 중부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대학에서 현대사를 전공하고 러시아로 이주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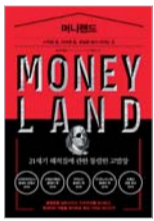
‘머니랜드’는 조세 당국과 공무원 감시를 차단하기 위해 은닉해 두는 가상의 나라를 지칭한다. 당초 우크라이나 전직 대통령 빅토르 야노코비치가 자국에서 약탈한 자금의 경로를 뒤쫓는 과정에서 취재가 시작돼, 전자 전 세계 조세 피난처의 실태 분석으로 이어진다.

저자의 목표는 언급한대로 도둑 정치가들이 은닉한 돈의 자취를 쫓는 데 있다. 벌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직 선거대책위원장 폴 매너포트의 기소도 주목한다. 폴 매너포트는 우크라이나 빅토르 야노코비치 같은 부패한 지도자들을 고액으로 두고 미국 정부에 로비를 펴면서 수백만, 수천만 달러를 받아 미국 조세 당국과 은행을 속이려다 들쭉날쭉했다.

저자는 머니랜드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강조한다. 하나의 시스템이자 각국의 제도상 허점과 사법관할 구역 간의 차이를 교묘하게 악용해 나타나는 범죄라는 시각이다. 일테면 영국 본토보다 영국령 저지섬 세율이 낮다는 것은 머니랜드를 부추기는 유인이 된다. 본토에 있는 자산을 저지섬으로 옮김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트리거·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이운정 옮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 요즘이다. 언젠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지,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구나 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때, 위스키 향이 물씬 풍기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행 에세이를 읽으며 북강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은 ‘상실의 시대’, ‘해변의 카프카’, ‘1Q84’ 등을 펴낸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위스키 관련 에세이로,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 (2001)의 전면 개정판이다. 위스키의 성지인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2주간 여행하며 마신 싱글 몰트 위스키와 아이리시 위스키의 공정 과정 등을 담았다.

“위스키를 마시면서 내가 늘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저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 풍경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만 남는 것, 그렇기에 더욱 귀중한 것을 여행은 우리에게 안겨 준다.”

책은 크게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두 개의 카테고리라 나뉘며 ‘아일랜드’가 유명한 이유는? ‘맛 좋은 위스키’, ‘중류소들의 개성적인 모듬살이’, ‘인생의 시작과 끝은 위스키와 함께’, ‘수줍고도 온화한 분위기의 아일랜드’, ‘로스스크레아의 펍에서 만난 노인’, ‘여행의 또 다른 하루 속으로’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하루키는 “술이라는 건 그 어떤 술이든 산지에서 마셔야 맛이 나는 것 같다. 그 술이 만들어진 장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며 “흔히 말하듯이, 좋은 술은 여행 하지 않는 법이다”고 전한다.

2주간 짧은 여행이지만, 동반자였던 부인 요요코가 찍은 사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술을 못 마시는 독자라도 위스키의 향취에 빠져들게 한다. <문학사상·1만3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lovelyline4u.com

## 선이고운치과교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0(농성동) 밝은클리닉 5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천변방향  
T. 062) 367-2279 | F. 062) 367-2280

원장 | 교정전문 이 기 현 | 김 고 운

www.chhospital.com

##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시험관아기기술 · 복강경수술

서구 무진대로 957번(광천동)  
대표전화 062.368-1700

건강한 생명, 행복한 미래

## 전남대학교병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원장 이 삼 용

통합콜센터 1899-0000  
응급의료센터 062.220-6801

CHOSUN UNIVERSITY HOSPITAL

## 조선대학교병원

병원장 정 종 훈

대표전화 062)220-3114 | 종합건강검진센터 062)220-3030  
진료예약 062)220-3006, 3009 | 진료협력센터 062)220-3989  
광역응급의료센터 062)220-3119 | 홈페이지 https://hosp.chosun.ac.kr

CHONGNANG HOSPITAL

## 중앙병원

심장내과, 신장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인공신장실, 재활한방과

내과전문의의원박사 | 내과전문의의원박사  
이 강 수 | 홍 순 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4(화정동)  
T. 062.456-6600 F. 062.456-6601

마음까지 치료하는 더 큰 사랑

## 침단종합병원

CHEOMDAN MEDICAL CENTER

병원장 양 원 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침단중앙로 170번길 59(쌍암동 665-1)  
대표전화 : 062)601-8000 응급의료센터 062)601-8119  
홈페이지 : www.cheomdanhosp.co.kr